

성공 신화 도전! (22-完)페리 양조장 ‘(주)페어리플레이’ 이송미·이다영 대표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양조장을 운영하던 두 청년이 지역 활성화의 구원 투수인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했다. 나주에 있는 국내 최초 페리(Perry) 양조장 (주)페어리플레이의 이송미(35·여), 이다영(35·여) 대표가 그 주인공. 페리는 배를 발효해 만든 과실주로 국내에서는 생소한 주(酒)종이지만 나주의 특산물인 배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 (주)페어리플레이 이송미(왼쪽)·이다영 대표.
- 2. 지난 2022년 1월 출시한 (주)페어리플레이의 대표 제품 ‘이제’. 3단계의 여과 과정을 거쳐 배가 가진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2.



1.

나주배로 빛은 로컬의 매력... “상생하는 청년 문화 만들고 파”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업에 제약이 생기자 평소 즐기던 술을 소재로 창업을 결심했다.

이후 한국야양연구소 등 교육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양조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던 중 우연히 서울시의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에 지원하게 됐다.

이들 대표는 지원사업 과정 중 나주의 지역 자원인 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주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2022년 1월, 시제품 ‘이제’를 출시했다. 그 해 넥스트로컬의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이들은 서울 성수동에 첫 사업장을 냈다.

이송미 대표가 나주배를 선택한 이유는 ‘친숙함’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나주에서 배를 따고 즙을 짜던 어릴 적 경험과 배 술을 만들던 사업소가 안타깝게 문을 닫은 역사는 그에게 도전 의식을 불어넣어줬다.

페어리플레이의 대표 제품인 ‘이제’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황금배, 추황배,

신고배 3가지 품종을 혼합하고 발효해 만든다. 배가 가진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3단계의 여과 과정을 거쳐 맑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들 대표는 전공을 살려 제품 라벨, 패키지 등을 직접 디자인하고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SNS 마케팅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페어리플레이의 제품은 출시 이후부터 지속해서 수요가 증가해 현재는 전국 130여 곳에 납품하는 등 주류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사업이 오늘날처럼 안정세를 이루기까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수요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과 두 대표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업무들이었다.

모든 제품을 수제로 생산했던 첫 사업장에서는 배 요를 가정용 착즙기로 하나 하나 갈아 한 달에 1천 병 정도만 생산할 수 있었다. 이들 대표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했기에 생산에만 집중할 수도 없

현지 황금·추황·신고배 활용 국내 최초 페리 양조장 제조부터 브랜딩까지...유명세 타고 전국 업장 납품 서울 성수동서 전남 나주 이전...지역 활성화 모색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23년 초 나주에서 청년 사업 간담회에 참가해 달라는 반가운 연락이 왔다. 간담회 이후 지역색을 살려 양조장을 운영해야겠다고 다짐한 이들 대표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도전하면서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도 마쳤다.

약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올해 5월, 나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과거 주민센터로 쓰이던 공간으로, 한 달에 약 5천600병을 생산할 수 있



서울 성수동 사업장에서 청년들과 ‘양조 연합’을 구성해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다.

는 제조 시스템을 갖췄다. 본사를 이전한 이후로는 검경사를 맞았다.

올해 8월 전라남도가 주최한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기타주류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 기념품 부문 특별상을 수상해 한국관광명품으로 인증받았다.

이송미 대표는 “내년 1월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해 지역 특산주로 승인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로 판로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페리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들 대표의 목표는 페어리플레이가 양조장을 넘어 나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허브(Hub)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송미 대표는 나주 읍성을 중심으로 한 로컬 상권정착 사업도 계획 중이다.

그는 “읍성 주변이 잘 가꾸어진다면 지역 사회와 상생하면서도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며 “성수동 사업장에서 ‘양조 연합’을 구성해 축제를 기획하는 등 재미 있는 일들을 많이 벌였다. 이곳에도 뜻이 맞는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어 다양한 실험을 해볼 기회들이 조만간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넥스트로컬, 제품개발도도화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이 큰 성장동력이 됐다”며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지원사업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좀 더 넓은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솔기자

경제일자리재단, 공공배달앱 10대 주요 성과 발표

배달앱 매출액·거래건수 상승...골목 상권 활력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이하 경제일자리재단)은 공공배달앱(APP)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10대 성과를 선정·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일자리재단은 지난 7월19일 광주 지역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배민독립 선언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광주의 배민독립은 이후 전남, 울산,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됐고 광주에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지난 8월 진행된 배민독립 1천인 서명 운동에는 1천517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고, 광주공공배달앱 캠페이너로 안진걸 소장(1호), 최진봉 교수(2호), 이광수 애널리스트(3호), 박시동 평론가(4호), 정진욱 의원(5호)을 위촉해 홍보

에 힘썼다.

지난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성과를 알리고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위메프, 뽕겨요 등 광주공공배달앱에서 진행된 KIA타이어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특별할인 프로모션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경제일자리재단은 10대 성과를 발표하면서 광주에서 시작된 배민독립 운동이 전국적 이슈로 성장하며 국회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논의로 이어졌으며, 공공배달앱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광주공공배달앱의 매출은 올해 1분기 18억4천만원, 2분기 20억7천만원, 3분기 20억2천만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3분기 거래 건수는 10만5천건으로 2분기 대비 23% 올랐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가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광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선도 도시로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문의 : 062)650-2099